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 552장

-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3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 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福

2026년 설 명절 가정예배



순교씨앗의 집
서울산정현교회

예 배 순 서

신앙고백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52장 다 같이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요 21:7-14 다 같이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선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 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찬 송 550장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 21:7-14

살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충격적인 상황이 연달아 벌어지자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대신, 익숙했던 예전 모습인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방황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 오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그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족의 형편과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허둥댈 때, 주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 손을 내미십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2. 과거의 상처를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필 왜 숯불이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때 곁에 있던 것이 숯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상처 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우리 가족도 서로의 실수나 아픔을 들춰내기보다, 주님처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화평의 식탁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3.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 특별합니다. 보통 관계는 서로가 노력해야 유지되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완성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날 버리고 도망쳤니?"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자"며 사랑을 나누어 주실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무를 짊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죽어 있던 소망들, 기도의 제물들, 하나님을 향한 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이 먼저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 가정이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따뜻한 '생명의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